

“과총, 과학기술계 총본산돼야”

鄭根謨장관, 과총회장단과 오찬서 당부



鄭根謨신임과학기술처장관이 과총이 마련한 장관취임 축하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鄭根謨과학기술처장관은 2월16일 과총 주최로 열린 장관취임축하오찬간담회에 참석, 閔寬植명예회장, 成樂正회장, 金東一상임고문, 鄭助英상임부회장 등 회장단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과학기술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정장관은 정조영상임부회장으로부터 과총업무현황을 보고받은뒤 『정부는 금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세계화의 기반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과총도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걸맞는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과학기술계의 총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장관은 이어 오는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을 계기로 최신 연구결과를 교환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시설을 갖춘 만큼 과학기술의 세계화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

는데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고하게 다져 나기는데 일조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또 우리 자체 기술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되 특히 중간진입전략(Mid-Entry Strategy)을 추구하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중간진입전략은 연구결과와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시에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서 특히 연구개발 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활동영역을 전 세계로 넓혀 첨단과학기술

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장관은 과총이 건의한 △순수 민간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공헌할 수 있는 과총의 혁신개혁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전국 圈域別 지역협의회 구성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 주력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협력 △학회정보화사업 적극추진 등의 요청에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정장관은 특히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은 모든 과학기술인의 숙원사업인 만큼 예정 工期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과총도 학회 육성 및 정보화사업, 재외과학회 육성 및 활용사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운영,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해외 고급과학기술자초빙활용(Brain Pool)사업, 「과학과 기술」지 혁신발간사업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자리에는 과기처에서 金知鎬 기획관리실장, 李相泰기술진흥국장이 배석했다.

남북 과학기술교류 심포지엄 오는 5~6월께 서울서 열기로

과총 민간교류추진협의회 정기총회서 결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20일 타워호텔에서 남북민간과학기술

술교류추진협의회 199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을 △한민족공동체정신에 입각한 민간차원의 통일기반조성 △남북과학기술 공동관심분야 또는 취약기술의 상호보완 △남북과학기술교류육구의 수렴, 조정 및 전문적 자문과 대표성 강화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유대강화 등에 두고 주요사업으로 △남북민간과학기술대표자회의 개최제의 △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 개최 △우리말 정보처리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북한의 과학기술 실태조사연구 △관련기관의 교류협력지원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동 협의회는 오는 5~6월경에는 남북교류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과학기술교류심포지엄을 서울

에서 열고 남북과학기술교류추진공동위원회 설치제의 및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추진에 관한 사항등을 심도있게 협의하게 된다.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컴퓨터용어 등 우리말컴퓨터 처리상의 남북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말 정보처리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5월께 중국 연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및 임원회의를 오는 9월에 프랑스에서 개최하고 세계한민족과학



▲과총은 지난 1월20일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기술자대표자회의를 5월 경 일본이나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전재미과학 협 회장인 함인영박사(미 펜실베이니아대 석좌교수)를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과총 제30회 정기총회

2월28일 외교안보연구원강당에서 개최
이사회, 과학기술진흥센터 준공일정 협의



▲2월8일 열린 1994년도 과총최종이사회에서는 제30회정기총회 일정 등이 논의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제30회 정기총회를 2월28일 하오3시 외교안보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키로 했다.

과총은 2월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실에서

1994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94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총회 심의안건과 수상대상자(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입주를 목표로 한창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과학기술진흥센터(한국과학기술회관)의 준공식을 오는 8월15일 광복50주년 경축일이나 9월24일 과총 창립기념일 중에서 거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건립되는 과학기술진흥센터에 세계 최대의 학술전산망인 인터넷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㉞